

# ISSUE PAPER

2024 Vol. **02**

| 발행인 윤효식

| 발행일 2024. 5. 29.

##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 혹시... 우리 아이가 고립·은둔 청소년?

- 01 지금, 고립·은둔 '청소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02 고립·은둔 청소년 정의
- 03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 04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소개 및 활용법
- 05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례 소개
- 06 정책제언



# ISSUE PAPER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4 Vol. 02

## 2024 청소년상담이슈페이퍼 2호

인 쇄 : 2024년 5월

발 행 : 2024년 5월

발 행 인 : 윤효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051)662-3132 / F.(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글로브임팩트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 01 지금, 고립·은둔 ‘청소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고립·은둔 청소년이라고 해서 ‘은둔’이라는 하나의 유형만 있지는 않아요. 사회와 단절을 선택했지만, 그만큼 연결을 갈망하고, 집 밖을 나가지는 않지만 온라인에서 활발히 소통하기도 해요. 다양한 유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사회는 아직까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해요. 몇 달 동안 나오지 않은 청소년에게 ‘강제로 끄집어내면 되지 그게 어렵냐?’라고 반응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을 정도로...”

- 고립·은둔 청소년 상담자 인터뷰 재구성(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 1970년대 일본에서는 세상과 접촉을 끊은 채 집에서만 생활하는 특유의 현상으로 ‘히키코모리’가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였고 국내에서는 이를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음. 최근에는 ‘외톨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고려하고, 심리적·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맞추어 ‘고립·은둔’ 현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민상 외, 2021),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였음.
- 여성가족부는 2024년 2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과 실태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였음. 현재,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3)에서 수행한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토대로 이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지금 고립·은둔 ‘청소년’에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와 초기 및 예방적 개입이 중요성을 설명하였음. 또한 사회와 단절되어 드러나지 않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찾아내고 선별할 수 있는 도구로서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소개하고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함.
- 은둔현상에 대한 관심은 오래되었지만, 국내 고립·은둔 청소년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어...
  - 국내에서 은둔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인 2000년대 초반임. 현재 고립·은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더욱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한 상황임.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없는 고립청년은 전체의 4.7%,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청년의 비율은 2.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2024)는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초로 사회적 고립 청소년의 비율은 5.2%로 약 14만 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음. 이렇듯 국내 고립·은둔 청소년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확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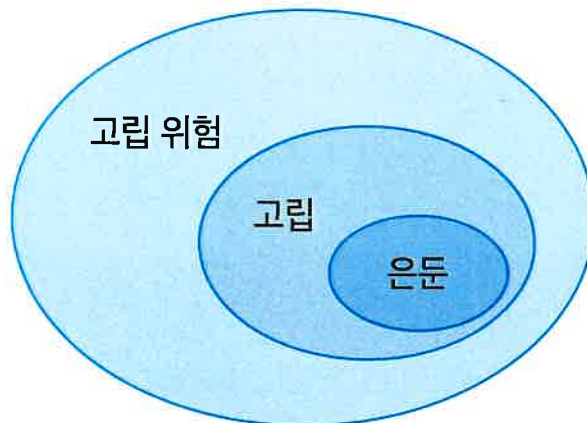
□ 고립·은둔 청소년의 조기발견이 중요

- 현재 청년실업, 청년고립 등 청년 연령에 초점을 두고 정책연구 및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고립·은둔은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된다고 보고하고 있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 초기 은둔의 경우 잘 드러나지 않아 가족이나 주위에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은둔이 장기화 될 위험성이 높아짐.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발달과업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성인기까지 고립·은둔이 장기화될 수 있음
- 따라서 고립·은둔을 초기 단계에 발견하고, 예방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고립·은둔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

## 02 고립·은둔 청소년 정의

- **고립:** 일반적으로 관계의 물리적 단절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 외출 정도가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
- **은둔:** 고립과 마찬가지로 관계 및 물리적 단절상태에 있음을 의미하지만, 고립에 비해 더 제한된 공간에서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특징을 가짐
- **고립·은둔 청소년:**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없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고,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9세에서 24세 연령의 청소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 고립과 은둔은 '사회적 연결'에 대한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1: 고립, 은둔의 관련성]



출처: 김성아 외(2022)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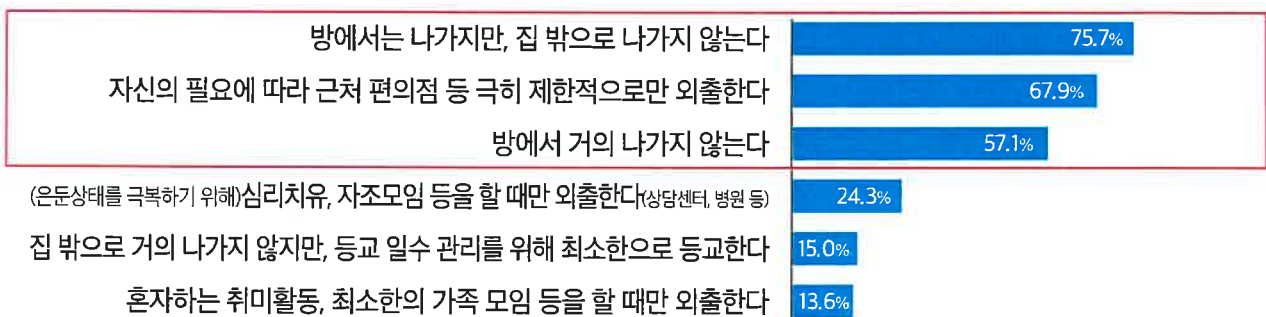
## 03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3)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이해하고, 발굴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중 고립·은둔청소년 상담경험이 있는 140명의 상담자
- 조사도구 :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 청소년 고립·은둔의 주요 계기, 원하는 서비스 등

###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 ① 상담자가 인식한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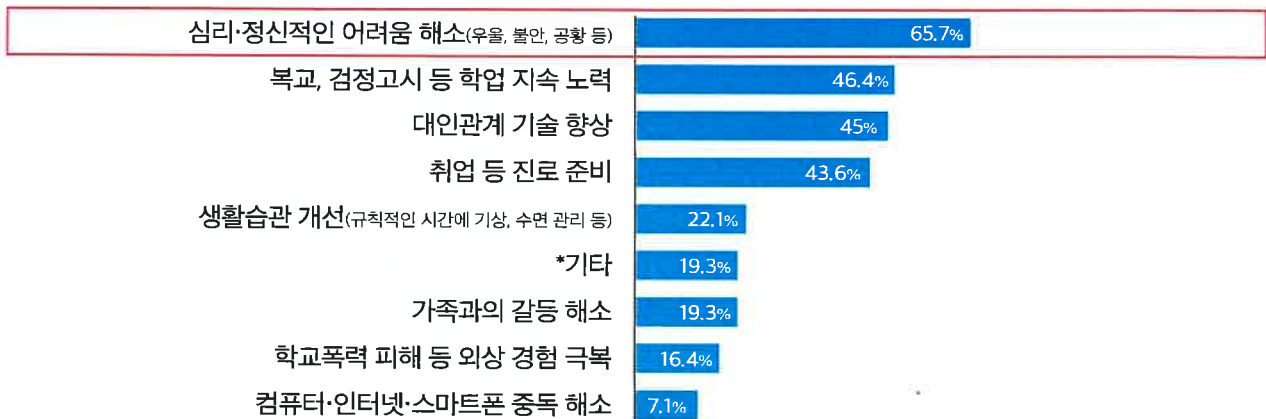
#### ② 상담자가 인식한 청소년이 고립·은둔을 하게 된 이유(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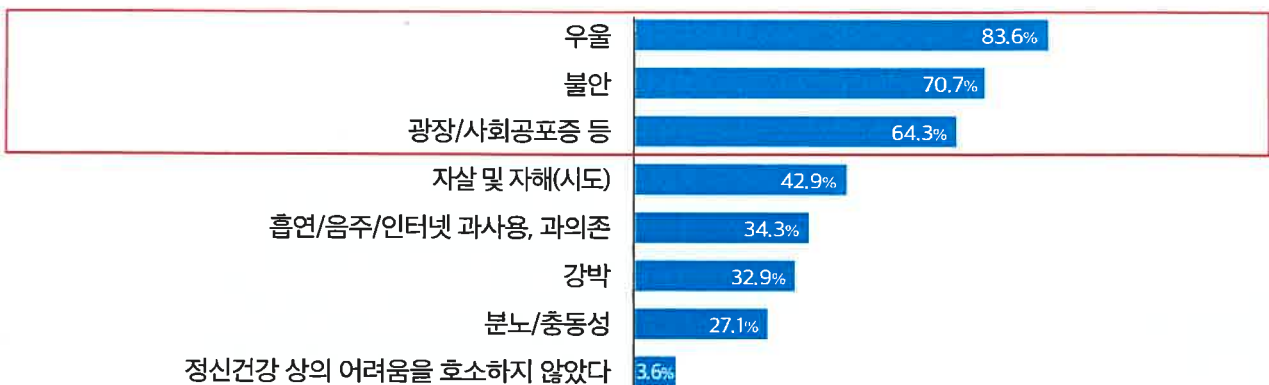
③ 상담자가 인식한 청소년의 고립·은둔 이전 경험(중복응답)



④ 상담자가 인식한 고립·은둔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중복응답)



⑤ 상담자가 인식한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중복응답)



㉔ 상담자가 인식한 재은둔을 하게 된 계기 (중복응답)



▣ 기초조사 결과 분석

- 우리가 고립·은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흔히 '자기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떠올림. 하지만, 현장의 상담자들이 만난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은 청소년'부터 '필요에 따라 외출하는 청소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음. 정도는 다르지만 고립·은둔 청소년 대부분은 인간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며,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은둔을 벗어난 후에도 다시 은둔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25.5%(35명)의 응답자가 재은둔 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재은둔의 계기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생활적응의 실패 등을 꼽았음.

“외부 세상과 단절되고 싶어서 혼자 게임만 하거나 부모님을 제외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청소년도 있었어요. 선택적 함구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은둔 수준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우울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거나 자해, 자살 충동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고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 고립·은둔 청소년 상담자 인터뷰 재구성(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 04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소개 및 활용법

### ▣ 고립·은둔 청소년 선별 도구: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전문가용)

-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조기 발굴과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현장의 상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부재하였음. 기존 척도들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대상연령이 광범위 하거나 당사자 혹은 부모가 보고하는 방식이라 상담자의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또한 고립·은둔의 일반적인 특성 이외에도 위험요인, 지지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요인과 문항의 수가 많아 선별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를 지님.
-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3)은 현장의 상담자들이 고립·은둔 청소년 선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립·은둔의 개념에 근거하여 3요인 13문항으로 구성된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함.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요인해석**
  - **사회단절/고립 요인:** 고립·은둔 청소년 대부분은 사회적 활동과 관계가 거의 없고, 외출을 하지 않거나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특징을 보임. 특히 은둔에 들어선 청소년들은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자는 단순히 게임중독으로 보기 보다는 자녀의 다른 사회적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심리적 회피 요인:** 고립·은둔 청소년 중 일부는 사람들과 깊은 친밀감을 나눈 경험이 부족하거나, 관계에서 상처 받은 경험이 있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친구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관계를 단절해 버리기도 함.
  - **생활습관 요인:**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주로 일상적인 일과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내담자가 어떻게 하루의 일과를 소화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내담자의 기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





○ 고립·은둔 청소년 선별 도구: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전문가용)

- 최근 3개월 동안 내담자(청소년)의 상태는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 내담자(청소년)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번호를 하나 골라서 ○표를 하십시오.

번호	요인	문항	해당되지 않는다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조금 해당된다	해당된다
1	사회 단절·고립	학교에 가지 않는다.	0	1	2	3	4
2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	0	1	2	3	4
3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인터넷(유튜브)이나 게임에 몰두한다.	0	1	2	3	4
4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0	1	2	3	4
5		가족이 없을 때(혹은 잘 때)만 움직인다.	0	1	2	3	4
6	심리적 회피	남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한다.	0	1	2	3	4
7		(혼자 있는 것이 편해서)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보낸다.	0	1	2	3	4
8		누군가와 연락(통화, 문자 등)을 하는 일이 별로 없다.	0	1	2	3	4
9		친한 친구가 거의 없다.	0	1	2	3	4
10		가능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한다.	0	1	2	3	4
11	생활 습관	방을 정리하지 않아 지저분하다.	0	1	2	3	4
12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	0	1	2	3	4
13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0	1	2	3	4

※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의 문항을 일부 수정함.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활용 tip!**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는 청소년 상담개입 경험이 풍부한 상담자 혹은 고립·은둔 청소년 사례관리자가 평정하는 것이 원칙임.
- 요인별 문항의 점수 합계가 사회단절고립 12점, 심리적 회피 14점, 생활규칙 6점 이상인 경우 해당요인에서 위기임을 의미함.
- 3가지 요인 중 2가지 요인이 위기인 경우 ‘고립형’ 청소년으로, 3가지 요인이 위기인 경우 ‘은둔형’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 심리평가를 진행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고립형에 대한 개입전략:**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한 고립형 청소년들은 상담 개입에 비자발적 특성이 강할 수 있어 온라인을 통한 접근방식이나 가족 등 보호자원을 활용한 개입을 진행함
- **은둔형에 대한 개입전략:** 고립 및 회피의 극단적인 형태인 은둔형 청소년들은 고위험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가족이 함께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함께 되어야 함

-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선별된 경우 보호요인인 부모나 가족의 지지 정도를 확인하여 상담개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 1가지 요인에서 위기인 경우 고립·은둔 경향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재의 생활 상태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예방적 상담 및 개입을 진행함.

**□ 고립·은둔 징후 파악을 위한 고립·은둔 스크리닝 척도(보호자용)**

○ “혹시 우리 아이가 고립·은둔 청소년이 아닐까?”

- 초기의 고립·은둔현상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가족과 학교에서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어 적절한 개입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보호자는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의 요인별 문항을 체크하여 청소년의 고립·은둔의 징후를 확인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위기정도 파악해야 함.
- 고립·은둔을 대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청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이 관계를 단절했다며 놀라기도 하지만, 고립과 은둔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요인들이 누적되었다가 폭발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음. 즉, 외부적으로 볼 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적인 어려움이 하나씩 쌓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작은 자극에도 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처하게 되는 상태가 고립·은둔 현상임<sup>1)</sup>. 따라서 주변에서는 청소년이 고립·은둔의 징후를 보이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악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리포트 2023년 3호

○ 고립·은둔 위기 징후 파악을 위한 고립·은둔 스크리닝 척도(보호자용)

- 최근 3개월 동안 자녀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번호	요인	문항	○	×
1	사회 단절·고립	학교에 가지 않는다.		
2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		
3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인터넷(유튜브)이나 게임에 몰두한다.		
4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5		가족이 없을 때(혹은 잘 때)만 움직인다.		
6	심리적 회피	남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한다.		
7		(혼자 있는 것이 편해서)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보낸다.		
8		누군가와 연락(통화, 문자 등)을 하는 일이 별로 없다.		
9		친한 친구가 거의 없다.		
10		가능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한다.		
11	생활습관	방을 정리하지 않아 지저분하다.		
12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		
13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한 위기징후 파악 tip!

- 자녀의 고립·은둔의 위기정도를 부모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문항에 해당여부를 ○, ×로 체크하여 위기의 징후가 보이는지 탐색하는 용도로 사용함.
- 사회단절고립 3문항 이상, 심리적 회피 3문항 이상, 생활습관 2문항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 고립·은둔의 징후가 보이는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보다 정확한 위기정도를 파악하고 예방적 개입을 진행함.
- 전문기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부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는 청소년1388 홈페이지에 '고립·은둔 상태검사'로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05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개입모형 및 사례

-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고립·은둔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립과 은둔의 상태는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치유와 호전이 어려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증가하고, 은둔을 벗어나는데 더욱 큰 용기가 필요하게 됨. 또한 청소년의 고립·은둔은 학교, 또래, 가족, 이웃, 사회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sup>2)</sup>.
- 여성가족부는 지원 단계별 서비스 내용을 담은 지원모형을 구체화(그림2)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그림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모형]



출처: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매뉴얼

-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사회조직에 속하지 않았거나, 소속감이 낮고 관계를 단절한 경우가 많아 서비스 지원기관과 접점을 갖기 어렵고 서비스에 대한 동기도 낮음.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들과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별로 고립·은둔 청소년 및 가족과 접촉 가능한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자와 접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3)은 청소년상담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프로세스’를 도식화(그림3)하였음.

[그림3: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프로세스]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3)

2)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리포트 2023년 3호

지역사회를 통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사례



상담자A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찾아내기도 어렵고, 상담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요. 지역사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지역마다 있는 통장님, 이장님, 청소년 지도위원님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가족을 잘 알고 계셔서 도움을 받기도 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님이 복지서비스를 받으러 갔다가 ‘우리 집에 애가 집에서 꼼짝도 안한다’ 이렇게 해서 연결된 사례도 있어요. 정말 3~4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지만 하나의 성공사례가 나와요.”



상담자B

“부동산에서 음사무소로 연락이 왔어요. 원룸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는데 집에 컵라면 같은 쓰레기가 가득 하다고... 알고 보니 쉼터에서 방금 나온 청소년이었어요. 부동산에서도, 원룸 집주인도 청소년에게 위험한 느낌이 들면 연락을 주셨어요. 이웃들이 관심이 청소년을 사회와 연결시킨 사례예요.”



상담자C

“가구원 전체가 은둔인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4개월, 어머니가 함께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7개월이 더 걸렸어요.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뭐 이런 거 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 고립·은둔 청소년 상담자 인터뷰 재구성(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국외 거점센터 사례

○ (일본) 고독고립대책담당실 신설과 고독고립대책추진법 시행(2024)

고독고립대책담당관실은 고립의 실태파악과 제도마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함.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전문가 조직과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국민의 이해증진, 상담지원의 확대, 당사자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축, 실태파악과 연구용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영국)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 신설 및 ‘외로움 해결을 위한 전략 보고서’ 발간(2018)

외로움을 사회적 의제로 삼고 대국민 캠페인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노력함. 외로움을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꾸준히 실시하고 투자를 지속함. 팬데믹 이후 청소년의 외로움에 관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함

※ 복지이슈Today(서울복지재단, 2023) 내용 재구성

## 🔊 일상생활에서 고립·은둔청소년에게 다가가는 방법

### ○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하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알고 싶은 마음에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질문이나 권유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음. 사소한 질문이라도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는 고립·은둔 청소년에게는 압박과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시작할 때는 가벼운 주제,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부터 나누는 것이 중요함.

### ○ 사소한 변화에 관심을 두되 적당한 거리 두기

청소년의 변화나 새로운 시도에 과하게 관심을 보인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음. 변화를 알고 있다는 표현은 하되, 과한 격려, 기대, 응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 반응이 없더라도 소통을 유지하기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막상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음. 청소년이 당장 반응이 없더라도 메모, 카톡, 문자 등으로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 개입을 위한 가이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내용 재구성

## 06 사회와 '안전한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제언

### □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긍정적 사업' 명칭 필요

- 고립·은둔 청소년은 게으르거나 잠재적 범죄자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은 구성원의 고립·은둔 사실을 숨기거나, 전문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며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음. 이렇듯 고립·은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조기발굴의 걸림돌이자 가족도 함께 고립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함. 고립·은둔 청소년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사회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포용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은둔', '외톨이', '은둔이' 보다는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명칭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러주세요'라는 캠페인이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에 효과를 주었던 경험을 참고하여 '고은청소년지원사업'과 같은 명칭을 제안함.

### 🔊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사례들

학교중퇴자→학교밖청소년 / 가출청소년→가정밖청소년  
예시) 고립·은둔, 외톨이→고은청소년 등

#### □ 고립·은둔의 예방과 조기발굴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단위의 발굴과 개입모형 연구 필요

- 많은 고립·은둔 청소년이 은둔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꼽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 고립·은둔의 징후로 볼 수 있는 ‘등교거부’, ‘학교부적응’은 학교현장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발견할 수 있는 특징임. 또한 가족이나 교사의 설득으로 등교는 하지만 장기간 대인관계 없이 상담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미 고립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일반학생을 대상의 고립·은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립·은둔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고립이 만성화되기 전에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 시군구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거점기관으로 하여, 유기적인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고립·은둔 청소년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상담복지서비스는 달라질 수밖에 없음. 고립·은둔 청소년 당사자와 가족에게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시군구별 거점기관이 필요함.
- 일본, 영국, 광주의 경우 지역의 거점센터가 주사례 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하고 있었음.
- 2024년부터 시작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은 아직 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고립·은둔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심의 지역 거점기관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제도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함.

#### • 고립·은둔 청소년 및 가족 특화 상담개입 프로그램 지속 개발 필요

-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고립·은둔 청소년은 상담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재은둔을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요구됨.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족 또한 걱정, 불안 등 부정적 심리 정서와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음. 가족이 청소년의 발굴과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및 가족 대상 심리정서 지원과 교육이 우선해야 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초점화한 전문화된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사례개입 매뉴얼 개발’ 중이며 내년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보급할 계획임.

- 아울러,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개입을 위한 지원 앱 개발(예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해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파악 및 발굴확대 방안 필요**

- 현재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전국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유형, 지역별 현황, 필요한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현황조사가 시급함.
-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발굴경로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영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으로 고립인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유튜브,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채널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

**• 고립·은둔 청소년을 만나는 상담자의 역량 향상과 소진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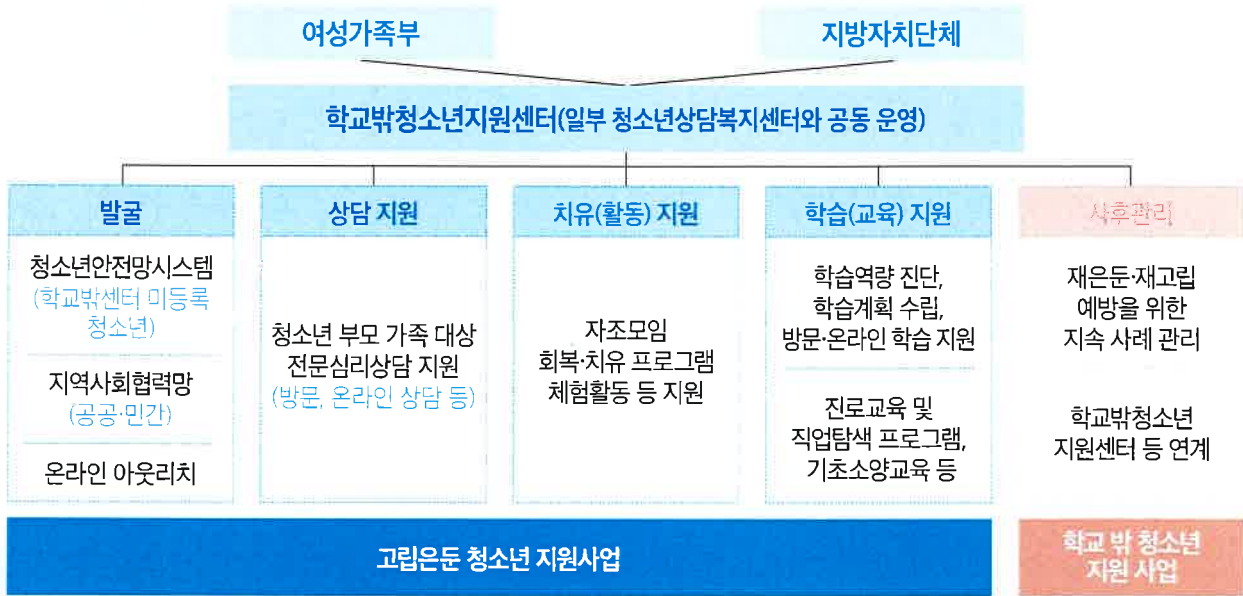
- 고립·은둔 청소년을 집중 관리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상담자 및 사례관리자는 전문 상담 능력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서비스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역량과 지식이 요구됨. 현장에서 청소년과 가족을 만나는 상담자 및 사례관리자는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육체적·정신적 소진의 위험이 높음. 청소년이 고립·은둔을 종결하는데 있어 상담자와의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 경험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소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개입은 주로 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담자 1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방문 시 2인 이상의 팀을 이루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서비스를 위해서 근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부록: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 사업 추진 체계



○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분	문항	주소	전화번호
서울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16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12-19, 3층	02-930-1388
	도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1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문화체육센터 1층	02-6956-4505~7
	송파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58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4길 7	02-3402-1318
	성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284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 다길 8-2	02-3292-1785
대구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1155)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6길 20, 아인빌딩 2층	053-963-9400
	달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2676)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7길 39	053-592-1378
	달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30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3층	053-614-1389
경기	수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64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수원청소년문화센터 B1층	031-236-1317
	성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40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54 수호빌딩 2~3층	031-729-9150
전남	여수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9761)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 1층	061-641-0924
경북	포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7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청소년수련관 2층	054-240-9171~4
경남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3, 4층	055-711-1336

- 김성아, 노현주, 김기태, 김문길, 안수란, 신영규, 임덕영, 정세정, 함선유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개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원, 조현주, 김지연, 김연옥, 김지향, 박찬희 (2022). 은둔형 외톨이 상담: 당사자와 부모 상담 가이드북. 서울: 학지사. 서울복지재단 (2023). 복지이슈Today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정책리포트
- 여성가족부 (202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형문, 김석웅, 박순영, 이세라, 최상희, 김영지, 이찬미, 장경철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주환, 이자영, 편여울강, 백정원, 어혜원 (2023). 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